

## “인간 차별이 엘지그룹 인화·정도경영인가”

### LG 백신 휴가 차별시행 ... 금속노조 “백신 후유증, 특수고용노동자는 피해가나”



“코로나 19 백신을 오후 3시 30분에 맞고 바로 4시 30분과 5시에 두 집을 점검했어요. 약속 변경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백신 맞기 30분 전까지 점검하고, 접종하고서 오후에 바로 다른 고객 방문했어요.”

“고객이 원하는 점검날짜가 백신 접종 다음 날이라 어렵다고 했더니 고객이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엘지전자 고객센터에서 매니저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바로잡겠다고 답했네요.”

“고객 불만 접수가 겁나 백신 접종 다음 날 점검 예약 13건을 모두 완료했어요.”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엘지케어솔

루션지회가 9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엘지 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지그룹에 엘지케어솔루션 노동자 백신 접종 유급휴가 도입을 촉구했다.

노조 서울지부 엘지전자·엘지하이엠솔루션·하이프라자바른노동조합지회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백신 후유증이 특수고용노동자는 피해가나”라며 한목소리로 엘지그룹의 백신 휴가 차별시행을 규탄했다.

노조 서울지부 엘지케어솔루션지회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본사·계열사 노동자들에게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1~2일 주는데, 엘

지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 엘지 가전 대어 서비스 노동자와 엘지전자랑 아무 관계가 없다?

엘지전자는 엘지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이 하이케어솔루션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 주장하며 이들의 백신 접종은 엘지전자와 하이케어솔루션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다.

김정원 엘지케어솔루션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엘지전자가 엘지전자 가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고 점검하는 노동자를 자신과 상관없다고 우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지회장은 고객 만족평가와 불만 접수를 내세워 케어 노동자를 매일 감시·통제하는 엘지전자가 케어솔루션 매니저들과 왜 별개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원 지회장은 “하이케어솔루션 사무직 노동자는 백신 유급휴가를 받고, 한 달에 200가구 가까이 직접 대면 서비스를 하는 매니저들은 백신 맞고 힘들어도 일하러 나간다”라며 “필요할 땐 가족이라면서 백신 맞고 쉴 권리 달라 하니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라며 외면하는 게 인화(人和)·정도(正道)경영을 외치는 엘지전자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김도현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엘지그룹은 하루빨리 엘지케어솔루션 모든 노동자에게 백신 접종 유급 휴가를 주고, 더불어 금속노조와

교섭에 즉각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가 지난해 5월 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를 설립했지만, 사측은 노동자성과 금속노조를 부정하며 단 한 차례도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조 서울지부와 엘지케어솔루션지회는 엘

지그룹 측에 엘지케어솔루션 매니저에 대한 백신유급휴가 도입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엘지케어솔루션지회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엘지전자 대여가전 이용고객과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10,628명이 LG케어솔루션 매니저들의 백신 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감전 중대재해 사망 28일, 세탁기 수리 중 감전 ... 실적압박, 1인 작업 등 열악한 노동환경 노출

세탁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금속노조는 해당 지부, 지회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대재해 대응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아무개 조합원이 9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탁기를 수리하다가 수도 누수가 발생해 감전사고를 당했다.

재해 노동자를 발견한 고객이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 아무개 조합원은 결국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진단을 받

았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재해 노동자의 한쪽 발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어 감전사로 잠정 추정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금속노조와 서울지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재해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29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담당자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노조는 첫 일정으로 9월 30일 11시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가전수리 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막으려 아이들까지 이용?

## 포스코 하청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불법파견 소송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급 유보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설립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자녀장학금을 미끼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

기금협의회는 9월 16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하청노동자가 있는 협력사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직원의 자녀장학금 지급을 유보한다’ 라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다. 현재 933명의 노동자가 소송 중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9월 28일 오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참가 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지급배제 규탄 기자회견’ 을 열었다.

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와 기금 측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

인 900명이 넘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자녀학자금 지급을 미끼로 소송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지부는 기금협의회가 협력사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 개선 등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금을 노조파괴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은 업체와 교섭으로 학자금을 받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기금이 지급하는 학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바꾸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기금과 사측의 말을 믿고 동의했다. 불법파견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기금 학자금도 못 받고 회사 학자금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포스코와 기금협의회는 하청노동자의 금속노조 가입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을 주어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있다” 라고 규탄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기금운용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출연기관, 금액, 운용 방식, 운용 규약 등 즉각 공개 ▲금속노조 조합원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하청노동자의 자녀학자금 지급 배제안 철회 ▲하청노동자 사이 임금·복지 격차 확대하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전면 개혁 ▲원·하청 차별 철폐와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 포항지부는 “노조 요구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받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노동관계법에 따라 고소·고발과 구제신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항의 면담 등 투쟁을 벌이겠다” 라고 경고했다.

